시흥소방서, 제1회 외국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성료'

기사입력시간 : 2023/02/27 [13:30:00]
정현희 기자

[FPN 정현희 기자] = 시흥소방서(서장 홍성길)는 지난 24일 2층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시흥시 거주자 외국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외국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특수시책으로 추진된 이번 경연대회는 관내 외국인들의 응급 상황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생명 존중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은 베트남, 중국, 미얀마, 필리핀, 태국, 몽골 등 6개국 14명이다. 이달 14일부터 22일까지 참가자별로 3회씩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집중 심화 사전 교육을 받았다.

경연 결과 최우수상은 지철금(중국)씨가 차지했다. 이소연(베트남)·쉬멍(중국)씨는 우수상을, 조정(중국)·서효은(베트남)·장위제(중국)·정팔리타(태국)씨는 장려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철금 씨는 "소방서와 시흥시 외국인 주민과 관계자들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익힌 심폐소생술을 주위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홍성길 서장은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얻은 경험이 유사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대회를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의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